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7(土)	18(日)
차차 흐려짐 2/11℃	구름 많음 1/5℃

News

- 지역 건보료 6.1% 인상 ②
- 광주 고교 배정권역 확대 ④
- 韓축구 오늘밤 우즈베크전 ⑩

Jeollado

- 그 사람-김봉연 선수 ⑦



Entertainment

- '샘플링 곡' 전성시대 ⑧
- 발길 붙잡는 '작은영화'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조 ⑬



유망직업 전망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세태도 바뀌는 시대  
진남과학대  
http://www.jinam.ac.kr

## ‘BBK 뇌관’ 김경준씨 송환

검찰 오늘 영장... 이명박후보 주가조작 연루 여부 등 조사



김경준 전 BBK대표가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김 씨는 입국 게이트에서 취재진에게 30초 가량 사진촬영에만 응한 뒤 서울 중앙지검으로 떠났다. /연합뉴스

올해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BBK 전 대표 김경준(41)씨가 16일 오후 6시 8분께 도파 5년 11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관련기사 2면〉  
검찰 호송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넘겨 받아 현지시간으로 15일 낮 12시10분 아시아나항공 OZ 201편에 탑승시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국내로 송환했다.

김씨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 호송팀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2층 8번 입국 게이트앞에서 취재진들을 위해 김씨로 하여금 30초 가량 사진촬영에만 응하도록 한 후 계류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준비한 차량으로 서울 중앙지검으로 곧바로 떠났다. 정상적인 입국절차를 밟으려면 통상 법무부 출입국심사와 세관 통관 등을 거쳐야 한다.

김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이 후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7일 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는 한국에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다 2001년 12월 공금 384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던 중 한국 법무부가 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신청함에 따라 2004년 5월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연방수사관 등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의 송환으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사안은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 ▲씨스·BBK 실소유자가 이 후보인지 여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BBK 투입 여부 등이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간주된다.

검찰은 이달 25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 1차 수사를 일단락 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BBK사건=김경준씨가 설립한 BBK(투자자문회사)의 관련 회사인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정확한 지칭이다. 김씨는 2001년 초 김금원이 BBK의 위법 투자 혐의 등 등록을 취소하자, ‘옵셔널벤처스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든 뒤 주가조작과 횡령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 384억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1년 정도 김씨와 ‘LK-뱅크’라는 별도의 회사를 동업한 적이 있었는데, 범여권 등에서는 이 후보가 BBK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도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개성공단 인터넷·전화 내년 개통

남북총리회담 합의...내년 상반기 서해서 공동어로 실시

### 내년 평양서 2차 회담

남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내 남북 인원과 차량들의 공동 출입허용 시간을 기존 하루 9시간 10분에서 15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또 장관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해주경제특구 ▲해주항개발 ▲한강하구공동이용 ▲공동어로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기로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서해에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분야는 12월 중 현지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남북은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6개월에 한차례 진행하며 제2차 총리회담을 내년 상반기 평양에서, 1차 경험

공동위를 다음달 4~6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에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양측 대표단은 16일 오전 종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8개조 49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2개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이번 합의서에서 내년부터 개성공단 인터넷과 유·무선 서비스를 하기 위해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선로를 금년 내 착공, 내년말 완공하기로 했다.

남북대표단은 또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다음달 중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엑스포 개최지 결정 D-10 여수시 지원단 각오



여수시 세계박람회지원단 직원들이 2012 엑스포 유치에 확신하며 개최권 확보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열흘만 더 고생하자 ‘여수!’ 환호 터진다”



“다시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2012 여수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수시 세계박람회 지원단 30여 명이 부족 땀을 흘렸다. 여수가 2010 엑스포 유치를 매진했지만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 터라 오는 27일 새벽 3시 (한국시각) 2012 엑스포 개최지 결정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지원단 직원들의 표정은 비장하다.

지난 2005년 4월 출범한 지원단은 엑스포 유치전을 본격 준비하던 지난해 5월 2과 6당당의 직제를 둔 국단위로 확대 개편된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12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달려왔다.

지원단은 2012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전남도·여수시 등의 원활한 유치활동을 위해 개최후보지의 준비사항과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현지 주민들의 유치열기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또 엑스포 행사장과 주변 기반 조성을 위해 편입 토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

박람회 관련 각종 SOC사업, 박람회부지 편입, 주민 이주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년여 동안 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해 지원단이 치른 크고 작은 행사는 셀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지난 4월 실시된 세계박람회기구(BIE)의 후보지 실사를 대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현지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원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두 차례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맞춰

현지행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엑스포 유치로

### 직원들 주말·휴일 만남...준비 끝

후대들에게 풍요로운 땅을 남겨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서 시간은 쏠 물렸다. 김용화(52) 지원단장은 “엑스포 유치에 매진해 온 지원단 직원들은 아예 주말과 휴일을 반납했다.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경조사에 제대로 참석할 수 없었지만 엑스포준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든 이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다”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다.

이어 김 단장은 “지난 4월 BIE 실사때 결집된 유치역량과 열기를 보여준 시민들의 노력과 전국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2012 엑스포 유치가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innisfree